

홋카이도 교육대학교 하코다테 캠퍼스 하코부라 레포트:

하코다테의 아이누 민족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홋카이도 교육대학교 하코다테 캠퍼스에 교환학생으로 온 예창 (한국), 한나, (호주), 크리스틴 (노르웨이), 조슈아 (영국), 조지 (영국), 슈안 (대만) 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코다테의 아이누문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누 박물관과 아이누 아트샵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근대 이전 홋카이도는 ‘에조카시마’ 나 ‘에조치’ 등으로 불리며 혼슈 정치권력의 영향력 밖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문화의 유입이 쉬운 지리적 위치를 지니고 있어 아이누는 오랜 기간 독특한 문화를 형성,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아이누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역사나 교훈, 생활의 지혜 등을 담은 서사시를 구전해 왔는데, 이러한 아이누의 서사시를 ‘유카라’ 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아이누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누 남자들은 턱수염을 길렀으며, 아이누 성인 여성들은 문신을 중요한 미적 요소의 하나로 여겨 얼굴의 입 주변이나 손등에서 팔꿈치까지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 넣은 나무껍질로 만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누 민족만의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못쿠리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 못쿠리를 저희가 아이누 박물관에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코다테시의 아카렌가 창고와 공회당 등이 모여있는 모토마치에 위치한 이곳의 정식명칭은 북방민족자료관 입니다. 아이누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이곳에서 저희들은 여러가지를 보기도하고 경험하였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누 민족의 전통악기인 못쿠리를 만들기였습니다.



뭇쿠리를 만들기전에 제작 방법을 배우고 있는 유학생들.

제작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관장님



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모두들 열심히 만들어 보았지만 결국 다들 연주하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뭇쿠리 제작 체험중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아이누 민족의 전통 문양입니다. 간단히 종이에 그려서 오려내기만 하면 되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전통문양 완성



다음으로 저희는 저희의 안내를 맡아주신 선생님과 함께 자료관을 견학하며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통의복, 장신구, 생활도구 등 여러가지 아이누 민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신구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유학생들



아이누 민족이 입던 의복입니다. 가죽으로 되어있는 신발과 의복인 것으로 봐서,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복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아이누 민족의 전통 의복



박물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던 테이블에는 저희가 만든 전통문양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휴식공간의 테이블



박물관에서 나와서 안내와 설명하느라 수고해주신 관장님. 친절한 안내와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절하신 관장님과 함께



한국 전통가옥을 닮은 코포로 앞에서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코포로' 라는 아이누
아트샵입니다.
신기하게도 코포로 아이누
아트샵은 한국의
전통가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점장님의 못쿠리 연주

반갑게 맞아 주시는 점장님.
대뜸 손에 들고 있는 못쿠리를
보시더니 연주시범을
보여주시네요.
너무 빨라서
손이 보이지 않더군요



코포로 내부

이러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꼭 전통적인 물건 이외에도 티셔츠나 컵등 실생활에서 쓸만한 물건도 팔고 있습니다



아이누 전통 인형



코포로 앞에서 점장님과 함께

아이누민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